

아웃도어 액티비티

시즈쿠이시초는 봄에는 분홍색 벚꽃과 신록이, 여름에는 짙은 녹색의 잎과 고산식물의 꽃이 마을 주변의 산길을 수놓습니다.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겨울이 찾아오면 온통 겨울 풍경으로 바뀝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은 분께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캠핑장

시즈쿠이시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캠핑장은 마을내에 2곳 있으며, 모두 온천이 겸비되어 있어 호텔과 료칸 등의 숙박 시설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미하리 온천 캠핑장

해발 770m에 위치하며, 규카무라 이와테 아미하리 온천 호텔에 병설되어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용객은 호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온천 ‘야쿠시노유(약사의 탕)’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지는 크게 나누어 나무 사이에 자리잡은 ‘임간 사이트’와 야외에 있는 ‘잔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각 차량 반입 여부와 인원수에 따라 몇 가지 크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과 온수 공급 구역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캠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나 장비가 없으신 분은 설치된 텐트에 도구와 식재료가 모두 제공되는 편리한 플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장 옆에는 ‘아미하리 숲 자연 탐방로’가 있어 나이와 체력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휴게소 시즈쿠이시 아넷코 캠핑장

넓은 이 캠핑장은 시설이 갖춰진 미치노에키 휴게소(지역 특산물의 판매와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휴게 시설)에 인접해 있어 미치노에키 휴게소 내에 있는 하시바 온천과 레스토랑,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은 드넓게 펼쳐져 있고, 잔디밭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며, 강에는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구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명의 유래인 ‘아넷코’는 친근하게 ‘젊은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현지 방언입니다. 미치노에키 휴게소와 캠핑장을 이어주는 다리와 길에는 현지에 전해지는 다섯 공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아넷코’의 모자이크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즈쿠이시에도 마스코트 캐릭터 ‘시즈쿠찬’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넷코 모습에 밀짚모자를 쓴 젊은 여성 캐릭터로 시즈쿠이시의 공식 홍보대사를 맡고 있으며, 마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노슈 하이킹

겨울 자연 탐색으로는 스노슈를 신고 눈 위를 걷는 하이킹도 인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설경을 즐기고, 눈에 남아 있는 동물의 발자국을 찾아보며 즐길 수 있습니다. ‘아미하리 숲 자연 탐방로’는 스노슈 하이킹을 하기에 최적입니다. 인접한 아미하리 비지터 센터에서는 스노슈와 타원형의 전통 설피(일본의 강설 지대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스노슈)를 대여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탐방로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 줍니다. 체험 투어에 참가하거나 직접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고이와이 농장에서는 스노슈 워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직원들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남아 있는 농장 주변의 오지까지 안내해 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안심하고 스노슈를 신고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과 농업 체험

시즈쿠이시 지역은 양질의 물과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농업이 번성한 지역입니다. 고분 시대(250~552년경)에는 벼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농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즈쿠이시초에서는 농사일 및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 농촌의 삶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계절과 개인의 관심에 따라 모내기와 벼 베기, 채소 재배, 시즈쿠이시 명물인 소를 비롯한 동물 돌보기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제 소바 만들기 체험 등의 요리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대응이 어려운 주민들도 방문객들이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